

企劃論文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조선시대 사상사 전공
kangms1@snu.ac.kr

- I. 머리말
- II. 고대-조선전기 『효경』의 위상 변화
- III.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 IV. 맺음말

I. 머리말

전국(戰國) 말-전한(前漢) 초에 성립된 『효경(孝經)』은 유교 윤리의 핵심인 효(孝)의 원칙과 규범을 수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유자(儒者)의 필독서 중 하나로 중시되었다. 또 『효경』은 가정에서의 효를 군주에 대한 충(忠)으로 수렴함으로써 집권적 관료제에 적합한 정치이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 이와 같은 『효경』의 정치적 성격은 한당대(漢·唐代) 정치·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²⁾ 그러나 주희(朱熹)는 한당대 『효경』이 갖고 있던 권위와 『효경』의 정치이념인 ‘효치론(孝治論)’을 부정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쇠신하여 『효경간오(孝經刊誤)』를 편찬했으며³⁾, 『효경간오』는 다시 동정(董鼎)의 주석을 통해 『효경대의(孝經大義)』로 이어졌다.

삼국시대에 처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효경』은 이후 조선시대까지 유학 교육의 주요 경서 중 하나로서 중시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경』이 지닌 성격이나 의미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동일했는가 하는 점이다. 고대·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유학의 주류적 흐름은 한당 유학(儒學), 북송(北宋) 유학, 주자성리학 등으로 계속 바뀌면서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읽었던 『효경』의 텍스트는 삼국시대에 『효경』이 처음 유입된 이래로 조선전기까지 계속 변화하다가, 16세기 후반 『효경대의』가 수입된 이후에는 『효경대의』로 고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시기별 유학의 성격 차이와 『효경』 텍스트의 변화는 당대인들이 『효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따라서 각 시기별로 『효경』을 이해하는 양상이나 『효경』이 갖는 학문적·정치적 위상도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효경』 이해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유학사상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제라고 생각된다.⁴⁾

1) 金勳植, 「高麗後期の『孝行錄』 보급」, 『韓國史研究』 73(1991), 21-48쪽.

2) 이성규, 「漢代『孝經』의 보급과 그 이념」, 『韓國思想史學』 10(1998), 183-221쪽.

3) 정호훈, 「朱子『孝經刊誤』와 그 성격」, 『東方學志』 116(2002), 71-106쪽.

4) 현재까지 한국사 분야의 『孝經』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글의 연구 범위인 조선전기까지로 한정해보면, 신라 中代 儒學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孝經』을 다룬 金英河의 「新羅 中代の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한국고대사연구』

이에 이 글에서는 『효경』 텍스트가 『효경대의』로 고정되는 16세기 말-17세기 초까지로 한정하여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전기 『효경』 이해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대·고려의 『효경』 인식을 함께 비교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고대·고려의 『효경』 학습과 조선의 『효경』 학습을 비교·분석하여 각 시기별 『효경』 위상의 차이와 그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조선전기에 읽혀진 『효경』 텍스트의 변화 과정 및 그에 반영된 조선 학자들의 『효경』 이해를 살펴본 다음, 이어 조선시대 『효경』 교육의 구체적 사례로서 왕실에서의 『효경』 교육과 그 의미를 정리해보았다.

II. 고대-조선전기 『효경』의 위상 변화

1. 고대-고려시대: 국학(國學)의 필수 교재

고대(古代)의 『효경』 관련 기록은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당시의 『효경』 이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백제의 학자 왕인(王仁)·아직기(阿直岐) 등이 『논어(論語)』와 『효경』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태자를 가르쳤다는 기록을 볼 때, 상당히 이른 시기에 『효경』이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

고대의 『효경』 위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은 통일신라 이후이다. 먼저 743년(경덕왕 2)에 당(唐)의 현종(玄宗)이 주석한 『어주효경(御注孝經)』 1부가 당으로부터 수입되었다.⁶⁾ 이어 747년(경덕왕 6)에는 국학(國學)에 세 가지 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이때 『효경』이 『논어』와 함께 세 개의 과정에서 모두 필수 과목으로 교습되었다.⁷⁾

40(2005), 137-179쪽과 고려시대 孝思想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유교정치사상을 분석·정리하면서 『孝經』을 다룬 李熙德의 『高麗儒教政治思想의 研究』(일조각, 1984) 등을 꼽을 수 있다.

5) 韓致滌, 『海東繹史』 권41, 交聘志 9; 권67, 人物考 1, 「王仁」.

6) 安鼎福, 『東史綱目』 제4하, 癸未年 景德王 2년(743).

7) 『三國史記』, 雜誌 第7, 「職官 上」.

경덕왕대 국학 교육 과정의 교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1과정: 『禮記』, 『周易』, 『論語』, 『孝經』/ 제2과정: 『春秋左氏傳』, 『毛詩』, 『論語』, 『孝經』/ 제3과정: 『尚書』, 『論語』, 『孝經』, 『文選』.

또 788년(원성왕 4)에 설치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에서도 『효경』은 상·중·하품(上·中·下品)의 모든 시험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중시되었다.⁸⁾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운영 내용을 볼 때, 『효경』은 통일신라의 관학 교육 및 인재 선발에서 『논어』와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교재였고, 따라서 통일신라 유학의 중심 경전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국학의 중심 교재로서의 『효경』의 위상은 고려에 들어서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초기 『효경』 교육의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하지만 1056년(문종 10)에 서경유수가 진사과(進士科)·명경과(明經科) 준비에 대비하기 위해 서경 내의 여러 학교에 비치해 주기를 요청한 서적들에 『효경』이 포함되어 있어서⁹⁾, 『효경』이 국가 교육과 관리 선발의 주요 과목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려 인종대에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는 국학을 정비하여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 사문학(四門學)의 3학(學)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학식을 제정하였다.

경전은 『주역(周易)』, 『상서(尙書)』, 『주례(周禮)』, 『예기(禮記)』, 『모시(毛詩)』와 『춘추(春秋)』의 『좌씨전(左氏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을 각각 1경(經)으로 삼고, 『효경(孝經)』과 『논어(論語)』는 반드시 겸하여 익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수업 연한은, 『효경』·『논어』는 합하여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상서』·『공양전』·『곡량전』은 각각 2년 반으로 한다. 『주역』·『모시』·『주례』·『의례(儀禮)』는 각각 2년을 기한으로 하며, 『예기』와 『좌씨전』은 각각 3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학생은 먼저 『효경』과 『논어』를 읽고 다음에 여러 경서와 함께 산(算)을 읽고 시무책(時務策)을 익힌다. 여가가 있으면 반드시 서(書)를 겸하여 익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하도록 하며, 아울러 『국어(國語)』·『설문해자(說文解字)』·『자림(字林)』·『삼창(三倉)』·『이아(爾雅)』 등을 읽도록 한다.¹⁰⁾

8) 『三國史記』, 新羅本紀 제10, 元聖王 4년.

독서삼품과에서 상·중·하품의 평가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上品: 『春秋左氏傳』, 『禮記』, 『文選』, 『論語』, 『孝經』 / 中品: 『曲禮』, 『論語』, 『孝經』 / 下品: 『曲禮』, 『孝經』.

9) 『高麗史節要』 권4, 文宗 10년 8월.

10) 『高麗史』 志28, 「選舉」 學校-國學. “凡經 周易·尙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公羊傳·穀梁傳 各爲一經 孝經·論語 必令兼通. 諸學生課業 孝經·論語 共限一年 尙書·公羊·穀梁傳 各限二年半 周易·毛詩·周禮·儀禮 各二年 禮記·左傳 各三年. 皆先讀孝經·論語 次讀諸經并算 習時務策 有暇兼須習書 日一紙 并讀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

인종대의 국학에서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 사문학(四門學)은 입학 자격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교육 내용은 3학(學)이 모두 동일하였다. 따라서 『효경』은 3학 모두에서 『논어』와 함께 국학의 생도들이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중시되었다. 한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고종대 기록에 따르면, 국자감(國子監)에서 매 4개월(季月) 6아일(衙日)에 의관처자(衣冠處子)들에게 『논어』와 『효경』을 시험해서 합격자를 뽑아 이부(吏部)에 보고하면 이부에서 다시 그의 세계(世系)를 상고해서 초직(初職)을 주었다고 한다.¹¹⁾ 이는 아마도 공식적인 과거가 아니라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취재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논어』와 『효경』이 시험 과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에서도 통일신라기와 마찬가지로 『효경』이 『논어』와 함께 국학 교육과 인재 선발의 핵심 경서로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의 학자들은 『효경』을 여러 경서 중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할 필독서로 인식했으며, 이는 고려후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규보(李奎報)가 자제들에게 “백가(百家)와 천사(千史)를 모두 궁구해야 하지만 『효경』을 먼저 읽어 깊은 뜻 터득하여라”¹²⁾라고 한 것이나, 이제현(李齊賢)이 충목왕(忠穆王)에게 “『효경』→사서(四書)→오경(五經)의 순으로 학문의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촉구한 것”¹³⁾ 등은 모두 『효경』을 학문 수련의 첫 번째 필수 과목으로 인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곡(李穀)의 『가정집(稼亭集)』이나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을 보면, ‘입신양명(立身揚名)’·‘이충(移忠)’·‘도지이예악 이민화목(導之以禮樂 而民和睦)’·‘만이불일(滿而不溢)’ 등 『효경』의 핵심 주제나 주요 구절들을 인용하여 지은 시문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¹⁴⁾ 이러한 모습은 이곡·이색으로 대표되는 고려후기 학자들이 『효경』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효경』이 당시 학자들의 필수 학습서였음을 증명해 준다.

11) 『高麗史節要』 권15, 高宗 9년 4월. “舊制 國子監 以四季月六衙日 集衣冠處子 試論語孝經 取中者報吏部 吏部更考世系 始授初職.”

12)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권1, 「示諸子」. “百家千史行自窮 先誦孝經深得旨.”

13) 『高麗史』 列傳 23, 「李齊賢傳」.

14) 李穀, 『稼亭集』 권4, 「韓國公鄭公祠堂記」, 「大元贈奉訓大夫遼陽等處行中書省左右司郎中飛騎尉遼陽縣君趙公墓塋記」; 권9, 「賀崔寺丞登第詩序」; 권11, 「爲金校勘天祚祭母文」. 李穡, 『牧隱詩藁』 권4, 「次巽亭詩韻」; 권10, 「李密直歸京山府」; 권28 「代權四宰作」; 권33 「種學副令自松京載酒食來餉」; 『牧隱文藁』 권1, 「靈光新樓記」.

그렇다면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효경』이 국학 교육과 인재 선발의 핵심 경전으로 중시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시기에 모두 나타나는, 주목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통일신라와 고려 모두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치 개혁이 추진되었던 시기와 국학에서 『효경』 교육이 강화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통일신라에서는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후반까지의 신문왕·경덕왕·원성왕대를 거치면서 국학 설치와 유교 교육 강화, 지방행정체제 확립, 중앙관제 및 군제(軍制) 개혁, 관료전(官僚田) 지급과 녹읍(祿邑) 폐지 등을 추진함으로써 귀족을 억제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확립해 나갔다.¹⁵⁾ 또 고려에서도 예종·인종대에 왕권의 회복과 정치기강의 확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학제와 과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끌어갈 새로운 관료들을 양성하고자 하였다.¹⁶⁾

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한당대의 『효경』은 ‘가천하적(家天下) 정치론’과 ‘효치론(孝治論)’을 통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집권체제 구축과 황제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주로 읽혔던 『효경』 텍스트들은 대부분 한당대에 유행했던 『금문효경(今文孝經)』 텍스트들이었다.¹⁷⁾

이렇게 볼 때, 통일신라 및 고려의 『효경』 이해는 정치론의 측면에서 한당대 『효경』 이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라와 고려의 학자들은 중국 왕조와의 학술 교류를 통해 한당대에 유행했던 『효경』 텍스트를 수용했고, 이 텍스트를 통해 황제권 강화와 집권체제 확립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한당대 『효경』의 정치론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론을 신라 및 고려의 정치 개혁에 적용하기 위해 국학 교육과 인재 선발에서 『효경』의 비중을 높여나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효경』을 국학의 필수 교재로 규정하고 교육을 강화했던 궁극적 목적은 『효경』의 정치론을 습득한 학자-관료들을 양성함으로써 이들을 중심으로 국왕 중심의 관료

15) 김수태, 「무열왕계의 왕권 확립」, 『한국사』 9(국사편찬위원회, 1998), 77-95쪽.

16) 문철영, 『고려 유학사상의 새로운 모색』(경세원, 2005), 179-227쪽.

17) 이 글 3장 1절 참조.

체계 확립이라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2. 조선전기: 아동의 기초 학습서

여말선초의 학자 권근(權近, 1352-1409)은 「효행록후서(孝行錄後序)」에서 『효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예전에 공자가 『효경』에서 위로는 천자의 귀함으로부터 아래로는 서인의 천함에 이르기까지, 털끝 하나 살 한 점 손상하지 않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산소에 편안히 안장하는 데까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말하여 만세를 훈계했으니,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다.¹⁸⁾

이 글에서 권근은 『효경』이 공자의 저작이며, 『효경』 안에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권근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첨(李詹, 1345-1405)도 “『효경』의 전질을 얻은 후에야 부모를 섬기는 처음과 끝이 갖추어졌다”¹⁹⁾라고 하여,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효경』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여말선초의 학자들은 『효경』을 ‘사친(事親)의 도(道)가 담긴 경서(經書)’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효경』을 필수 학습서로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조선전기 내내 지속되었다.

『효경』이 학습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필수 교재로 인식된 것은 외형적으로는 고려와 조선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효경』의 위상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고대-고려시대의 『효경』은 국학 교육 및 관료 선발의 필수 과목으로 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었다. 그에 따라 학자들은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효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조선전기에 『효경』을 익혀야 할 대상은 관직 진출을 앞둔 학자들이 아니라 이제 막 글을 익히기 시작한 아동이나 초학자들였다.

18) 권근, 『陽村集』 권20, 「孝行錄後序」. “昔孔子於孝經 上自天子之貴 下至庶人之賤 始自髮膚之不傷 終至宅兆之安厝 靡不備學而悉言之 以訓萬世 子事父母之道 無餘蘊矣.”

19) 이첨, 『雙梅堂篋藏文集』 권25, 「新刊孝經跋」. “旣得孝經全書 然後事親之始終具矣.”

즉, 조선에 들어서면서 『효경』을 공부해야 하는 주 대상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15세기의 학자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죽은 아들을 애도하는 글에서 아들이 6세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여 9세 때에는 『효경』을 암송했다고 하였다.²⁰⁾ 김종직(金宗直, 1431-1492)도 6세 때부터 부친 김숙자(金叔滋)에게 수학했는데, 먼저 『동몽수지(童蒙須知)』·『유학자설(幼學字說)』·『정속편(正俗篇)』을 공부하고 이어서 『소학(小學)』과 『효경』을 익힌 다음 사서, 오경, 『통감(通鑑)』, 제사백가(諸史百家) 등을 차례로 학습하였다.²¹⁾ 이는 그가 『동몽수지』 등을 배워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된 후, 그다음 단계로 『효경』을 공부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외에도 16세기의 문집을 보면 당시 학자들은 대체로 6-9세 때에 학습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 공부한 서적이 거의 대부분 『효경』이었다.²²⁾

한편 15-16세기에 지어진 묘갈명(墓碣銘)·묘지명(墓誌銘)들을 보면,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효경』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²³⁾ 이를 통해 사대부의 자녀들이 본격적인 학업에 들어가기 전 가정에서 기초 교육을 받을 때 공부한 교재가 『효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효경』을 가르친 주체가 주로 어머니였다는 점은 『효경』이 여성들에게도 필수 학습 교재였음을 보여준다.²⁴⁾ 이처럼 조선전기에 들어서 『효경』은 '아동의 기초 학습서'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16세기의 학자 박승임(朴承任, 1517-1586)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손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효경』과 『소학』을 가르쳐 문의(文

20) 姜希孟, 『私淑齋集』 권4, 「悼子篇-并序」.

21) 金宗直, 『佔畢齋集』, 「佔畢齋先生年譜」.

22) 文益成, 『玉洞集』 卷首, 「玉洞文先生年譜」; 奇大升, 『高峯集』 卷首, 「高峯先生年譜」; 金誠一, 『鶴峯集』 附錄 권1, 「年譜」; 安敏學, 『楓崖集』 附錄, 「年譜」; 李廷馨, 『知退堂集』 권14, 「年譜」; 李恒福, 『白沙集』 권3, 「羅公墓碣銘」.

23) 李陞, 『靑坡集』, 「靑坡碑銘-并序」(成倪 作); 申用漑, 『二樂亭集』 권15, 「贈承政院都承旨李公妻許氏合葬墓碣銘」; 蘇世讓, 『陽谷集』 권12, 「令人李氏墓碣銘-并序」; 李浚慶, 『東阜遺稿』 권6, 「正獻公-卽伯判書-行狀」; 盧守愼, 『蘇齋集』 권9, 「有明朝鮮國資憲大夫兵曹判書李公神道碑銘-并序」.

24)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孝經』을 가르친 사례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홀어머니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경우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한편 『孝經』은 諺解가 없어 여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醫女의 文字 해독 능력을 기르기 위해 『孝經』을 가르쳤다는 기록[『世宗實錄』 5년 12월 27일(갑술)]은 『孝經』이 여성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은 책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義)가 조금 통하게 된 다음에 사서를 가르쳐야 한다”²⁵⁾고 하였다. 또 김성일(金誠一, 1538-1593)도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에서 이황(李滉)이 자손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효경』·『소학』 등을 먼저 가르쳤고 어느 정도 문의가 통한 다음 사서를 가르쳤으며 단계를 뛰어넘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⁶⁾ 이와 같은 기록들은 당시 학자들이 『효경』을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 과목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연구해야 할 경서(經書)라기보다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문의를 통하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기초 교재 정도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조선전기 『효경』의 위상은 고대-고려시대의 위상과 비교해볼 때 크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 『효경』의 위상이 낮아진 1차적 원인은 조선이 성리학을 국가사회 운영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주수신(君主修身)과 ‘군신공치(君臣共治)’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정치론의 경전적 근거를 『대학(大學)』에서 찾았다. 그에 따라 한당대의 정치론을 대변하는 『효경』이 조선에서 국정 운영 방식의 경전적·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여지는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좁아졌다. 그 결과 『효경』은 ‘국학의 필수 교재’라는 정치적 위상을 점차 상실하였고, 유교적 윤리의 핵심인 효의 원칙과 규범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학자나 아동의 기초 학습서로만 남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 들어와 『효경』의 위상이 하락된 원인을 인재 선발 제도의 변화에서 찾는 견해도 있었다. 15세기 초반의 학자 허조(許稠, 1369-1439)는 『효경』이 경시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판부사 허조가 계하였다. “『효경』과 『소학』은 모두 처음 배우는 자가 마땅히 먼저 습득할 책입니다. 그러나 『소학』은 과거를 볼 때 강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모두 마지못해 이를 읽지만, 『효경』은 세상의 초학(初學)들이 전혀 읽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경연에서 자구(字句)를 풀이한 『효경』을 내어다가 이를 간행하여 초학들을 가르치게 하소서.”²⁷⁾

25) 朴承任, 『嘯臯集』 권4, 「寄子澗書」. “凡教訓子孫 必先授孝經·小學等書 略通文義 然後乃授四書.”

26) 金誠一, 『鶴峯集』 續集 권5, 「退溪先生言行錄」. “訓誨子孫 必先以孝經·小學等書 略通文義 然後及於四書 循循有序 未嘗躐等焉.”

27) 『世宗實錄』 11년 3월 22일(무진). “判府事許稠啓 孝經·小學 皆初學所當先習之書也 而小學講於科舉之時 故儒者皆不得已而讀之 若孝經則世之初學 專不讀習 請出經筵句解孝經

여기에서 허조는 『효경』의 위상이 낮아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효경』이 과거의 시험과목에서 제외된 점을 들고 있다. 즉, 유학의 기초 학습서라는 점에서 『효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소학』은 과거에서 강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좋든 싫든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 『효경』은 과거시험과 같이 학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학자들이 『효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조도 『효경』 경시에 대한 대책으로 『효경』의 간행·보급과 교육 강화를 주장했을 뿐 『효경』 학습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허조의 지적 이후에도 『효경』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효경』의 위상 하락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사람은 16세기 전반의 학자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었다. 주세붕은 송인수(宋麟壽)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효경』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소학』·『대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효경』을 ‘소아지서(小兒之書)’로 여겨 소홀히 하게 되었고 심지어 경연에서도 『효경』을 강하지 않으니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²⁸⁾ 또 그는 공자가 산정찬수(刪定纂修)한 육경(六經) 중에서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는 책은 『효경』이 유일하다고 하여²⁹⁾, 『효경』이 공자의 저작이며 육경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경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현실의 『효경』은 위로 육경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사서와 나란히 서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효경』의 ‘지덕(至德)·요도(要道)’는 단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암송되고 있을 뿐 대인(大人)·군자(君子)들이 복응(服膺)하는 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³⁰⁾

이상과 같은 주세붕의 비판은 당시 사람들의 『효경』 인식에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세붕은 『효경』의 핵심을 ‘효제(孝悌)’로 규정하면서, 이는 화목(和睦)의 근본이 되며 이 도(道)를 실천할 수 있다면 삼대(三代)를 회복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고 하였다.³¹⁾ 이는 주세붕이 『효경』을 치도(治道)의 요체가 담겨

刊行以教初學.”

28) 周世鵬, 『武陵雜稿』 권5, 「與宋參判眉叟」. “今人誨兒 先授孝經 次小學 次大學 遂以孝經爲小兒之書 謾不加省 至於經筵 亦不進講 恐非細缺.”

29) 周世鵬, 위의 글. “六經皆經吾夫子刪定贊修 而其自爲一家書者 唯孝經一部而已.”

30) 周世鵬, 위의 글. “獨怪孝經之書 上不列於六經 下不列於四書 所謂至德要道者 徒見誦於童牙 而不爲大人君子之所服膺者 何也.”

있는 책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세붕이 촉구했던 『효경』 인식 전환의 방향은 『효경』을 ‘치국(治國)의 경서(經書)’로 인식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세붕의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조선전기 『효경』의 위상은 더 이상 이전 시대와 같은 정치적·사상적 중요성을 회복되지 못한 채 ‘아동의 기초 학습서’로만 남게 되었다.

III.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1. 『효경』 텍스트의 변화

경서의 학습과 연구에서 어떤 텍스트를 사용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학습과 연구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헌에서 확인되는, 신라와 고려에서 유행했던 『효경』 텍스트들은 한당대에 유행했던 『금문효경』에 기반한 것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통일신라의 국학에서 『효경』 교육이 강화되기 전에 당으로부터 『어주효경』이 들어왔는데, 이는 당대의 금문(今文)·고문(古文) 논쟁 과정에서 『금문효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고문효경』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보완한 텍스트이다. 고려의 경우에는 959년(광종 10)에 고려에서 사신을 통해 후주(後周)에 『별서효경(別序孝經)』, 『월왕효경신의(越王孝經新義)』, 『황령효경(皇靈孝經)』, 『효경자웅도(孝經雌雄圖)』 등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³²⁾ 한치윤(韓致胤)은 『별서효경』에 대해 『송삼조예문지(宋三朝藝文志)』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현(鄭玄)이 주석한 책으로 보았으며, 또 『월왕효경신의』에 대해서는 지금의 『효경정의(孝經正義)』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³³⁾ 정현은 『금문효경』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이며, 『효경정의』 역시 금문 계열인 『어주효경』에 기반하고 있다.

31) 周世鵬, 위의 글. “吾觀十八章中 其言之無盡 而廣之者三 曰廣至德 曰廣要道 曰廣揚名. 然而究其實 則不過曰孝悌而已 然後知孝悌乃和睦之本也. 嗚呼 苟能是道 則挽回三代 猶反手也.”

32) 『高麗史』 世家2, 광종 10년; 安鼎福, 『東史綱目』 제6상, 광종 10년.

33) 韓致胤, 『海東繹史』 권42, 藝文志3, 經籍3, 「中國書目」.

조선은 성리학의 이념적 기반 위에 건설된 나라였으므로 경학(經學)에 서도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註)』와 같은 성리학적 텍스트들이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수입되어 학습과 연구에 사용되었다. 『효경』의 성리학적 텍스트로는 주희가 금문·고문 『효경』을 산삭·정리해서 편찬한 『효경간오(孝經刊誤)』와 원대 학자 동정이 『효경간오』를 기반으로 주석을 붙인 『효경대의(孝經大義)』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경서들의 성리학적 텍스트들이 고려 말부터 수입·간행되어 읽혔던 것과는 달리, 『효경간오』와 『효경대의』의 수입·간행은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의 실록이나 문집에 수록된 『효경』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김인후의 「효경간오발(孝經刊誤跋)」(1546) 이전에는 『효경간오』나 『효경대의』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또 앞 장에서 검토했던 주세붕의 「여송참판미수(與宋參判眉叟)」 중에는 “내가 18장(『효경』)을 보니 그 말이 다함이 없다”³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18장은 곧 18장으로 편집된 『금문효경』을 의미한다.³⁵⁾ 주세붕이 송인수에게 편지를 보낸 때가 1537년(중종 32)이었다. 따라서 이 자료 하나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6세기 전반까지 조선에서 주로 이용된 『효경』 텍스트는 『금문효경』에 기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 시기에 『효경간오』가 이미 조선에 수입되었을 수도 있지만 주세붕 정도의 학자가 여전히 『금문효경』 텍스트를 보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효경간오』가 널리 보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전기 학자들의 문집에 수록된 『효경』 관련 기록 중에는 고려 말-조선전기 『효경』 간행의 경위와 당시 학자들의 『효경』 인식을 보여주는 발문들이 몇 편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이 발문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전기 『효경』 텍스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말-조선전기에 간행된 『효경』 텍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자료는 여말선초의 학자 이침이 지은 「신간효경발(新刊孝經跋)」이다. 이 글에 따르면, 이침은 당초 남굴보(南屈父)의 『상제도식(喪祭圖式)』을 간행하고자 했는데, 이 책의 권두에는 임씨(林氏)의 「효경서(孝經序)」

34) 각주 31) 참조.

35) 『孝經刊誤』와 『孝經大義』는 經1장 傳14장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상으로 18장의 『今文孝經』, 22장의 『古文孝經』과 확연히 구분된다.

만 실려 있었고 『효경』의 경문은 빠져 있었다.³⁶⁾ 그러던 중 인주(隣州)의 백고지(白沽之)가 제13장 이후 부분이 일실된 『효경』 난질(亂秩)과 도식(圖式) 1책을 보내왔으며, 또 족제(族弟) 김거두(金居斗)가 이 책을 보고 돌아가서 『효경』 13장 이후 부분을 구해 보내옴으로써 마침내 『효경』 완질을 갖추게 되었다.³⁷⁾

『신간효경발』에서 이침은 김거두가 보내온 『효경』을 보고 “과연 삼산(三山)이 주석한 것이다(果三山所註也)”라고 하였다. ‘과삼산소주야(果三山所註也)’라는 표현과 전후 문장의 맥락을 볼 때 ‘삼산’은 남굴보의 『상제도식(喪祭圖式)』 권두에 수록된 「효경서(孝經序)」의 저자 ‘임씨’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즉, 이침은 확보한 『효경』의 완질본은 ‘삼산 임씨’ 서문을 쓰고 주석을 붙인 책이었다. 『신간효경발』에는 이 ‘삼산 임씨’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이재영에 의해 처음 소개된 ‘고려본’ 『효경』에서 ‘삼산 임씨’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였다.³⁸⁾

‘고려본’ 『효경』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효경』 판본 중 간행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이 책의 권두(卷頭)에는 1316년(元延祐 3)에 임화보(林華甫)가 지은 자서(自序)가 수록되어 있고, 본문 첫머리에도 ‘삼산 후학 임화보 찬주(三山 後學 林華甫 纂註)’라고 주석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침이 확보한 『효경』의 서문과 주석을 지은 이가 ‘삼산 임씨’라는 점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침이 언급한 ‘삼산 임씨’는 임화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임화보에 대해서는 『효경』 발문의 저술시기(1316년)를 통해 원대(元代) 학자라는 것만 확인될 뿐, 그 밖의 이력은 알려진 바가 없다.

‘고려본’ 『효경』에는 이침의 발문이 없고 대신 1373년 영해군수(寧海郡守) 한충호(韓沖浩)가 지은 발문이 실려 있어서, 이 책을 이침이 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삼산 임씨’의 주석을 저본으로 한 점, 상례(喪禮)·제례(祭禮)에 관한 도식(圖式)이 부록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고려본’ 『효경』과 이침의 간행본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특히 한충호의

36) 李詹, 『雙梅堂篋藏文集』 권25, 「新刊孝經跋」. “予嘗得南屈父之所蓄喪祭圖式 [...] 試欲刊行 得疑其篇首所著 林氏孝經序獨存 而經闕焉.”

37) 李詹, 위의 글. “隣州白使君沽之 出孝經亂帙與圖式一書也 但其十三章以後逸 族弟金居斗適客焉 見其書而還 歸其孝經十三章以後 果三山所註也.”

38) 이재영, 「朝鮮時代 『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 『서지학연구』 38(2007), 338-340쪽. 필자는 ‘고려본’ 『효경』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된 ‘고려본’ 『孝經』에 관한 내용은 모두 이재영의 연구에서 소개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발문에 따르면, '고려본' 『효경』의 저본도 처음부터 완질이었던 것이 아니라 세 집에서 나온 낙질이 모여서 하나의 완질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다.³⁹⁾ 이는 이첨의 발문에서 언급된 『효경』 완질본의 형성 과정과 동일하며, 또 낙질이 나온 세 집의 성씨(姓氏) 및 각각의 낙질에 수록된 범위도 이첨의 발문 내용과 일치한다.⁴⁰⁾ 이렇게 볼 때, 이첨이 간행한 『효경』과 현전하는 '고려본' 『효경』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향후 보다 면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첨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효경』 완질을 저본으로 삼아 『효경』을 새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신간효경발」의 말미에서 당시의 『효경』 간행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슬회하였다.

아, 하나의 책이 세 집에서 뒤섞여 나와서, 이제 다시 합해져 하나가 되었다. 물(物)은 끝내 헤어지지 않으니, 그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다. 학자들이 (이 책을) 쉽게 배우기만 한다면 이 책을 간행하는 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에 그 일의 시말(始末)을 갖추어서 새로 간행한 책의 뒤에 부록한다.⁴¹⁾

여기에서 이첨은 당시 『효경』 완질본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말선초를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이첨조차도 『효경』 완질을 구하기 어려웠다면, 여타 학자들이 『효경』 완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즉, 『효경』은 일찍부터 필독서로 중시되었지만, 실제로는 『효경』 완질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만큼 『효경』의 내용 전체를 숙지한 이들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전기의 『효경』 텍스트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주희의 『효경간오』가 수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효경간오』는 주희가 '효치론(孝治論)'으로 대표되는 한당대 『효경』 이해를 비판하면서 『효경』의 원문을 산삭·정리하여 '경1장 전14장(經1章 傳14章)' 체재로 재구성한

39) 고려본 『孝經』 跋文(韓沖浩 작). “八溪守白公瑠 所遺本經 僅十三章 恨其有逸後 於前副令 金公居琪家 又得所遺五章 乃合爲今書 繼有前佐郎南公○伸 示以先儒喪葬祭式 詳校三家之書 出自一轍 故并附卷末”(이재영, 위의 논문, 339-340쪽에서 재인용).

40) 이첨의 발문은 각주 36), 37) 참조.

41) 李詹, 앞의 글. “嗚呼 一書而錯出於三家 今復合爲一 物下終離 其理固然 學者其有易而學焉 則孰知刊是書也 如此爲難哉 於是具其事之本末 竊附鼎新鈔梓之後云.”

책으로, 성리학적 『효경』 이해의 근간이 되는 텍스트이다.⁴²⁾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1546년(명종 1) 『효경간오』를 간행하면서 그 발문을 지었다. 발문에 따르면, 김인후는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재직할 당시 『효경』을 간행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언관에서 파직되어 낙향하던 유희춘(柳希春)이 옥과에 들렀다가 『효경간오』 진강본(進講本) 한 짚을 주어 이를 저본으로 『효경간오』를 간행했다고 하였다.⁴³⁾ 김인후가 옥과현감으로 부임한 것이 1543년(중종 38) 12월이고⁴⁴⁾, 유희춘이 언관에서 파직된 것이 1545년(명종 즉위) 8월이므로⁴⁵⁾, 김인후는 대략 1545년 상반기부터 『효경간오』 간행을 추진하여 약 1년여 만에 간행을 완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희춘이 김인후에게 준 『효경간오』는 진강본, 즉 경연이나 서연에서 진강되던 책이었다. 이를 통해 1546년 이전에 이미 『효경간오』가 수입되어 왕실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인후의 『효경간오』 간행은 『효경간오』가 왕실을 넘어서 사대부가와 민간에까지 보급되는 과정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인후의 「효경간오발」은 조선전기 학자들의 『효경』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문에서 김인후는 우선 『효경』이 공문(孔門)에서 전수된 책이며, 선유(先儒)들이 초학을 가르칠 때 『논어』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서라는 점, 그리고 한대 이후 본의가 상실되고 체재가 문란해진 『효경』을 주희가 산삭·정리하여 『효경간오』를 편찬한 사실 등을 서술하였다.⁴⁶⁾ 이어 그는 주희가 『효경간오』를 편찬한 다음 그에 대한 외전(外傳), 즉 주석을 짓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2) 주희의 『孝經刊誤』 편찬 목적 및 『孝經刊誤』의 체제, 내용 구성, 특징 등에 대해서는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동방학지』 116(2002), 71-106쪽을 참조.

43) 金麟厚, 『河西全集』 권11, 「孝經刊誤跋」. “余監玉果縣 方欲刊行此經 以訓童蒙 友人柳君希春 以言官罷歸 搜其行篋 得進講本一表 卽謄授刻僧天印 鉞之梓 未幾 余以病去職 越明年丙午夏六月中旬後日 印畢刻以來視.”

44) 金麟厚, 『河西全集』 附錄 권3, 「年譜」.

45) 『明宗實錄』 즉위년 8월 24일(갑인).

46) 金麟厚, 『河西全集』 권11, 「孝經刊誤跋」. “孔門傳授 幸存此經 而其爲書原始要終 使各隨其所處之分 以盡其職之所當爲 [...] 故先儒之教初學 必以論語並稱 而目之以經者 豈徒然哉. 傳者旁引曲證 多失本經之意 而時有格言 又頗爲後人所亂 分裂增損 無復統紀 至宋子朱子 始刊其誤.”

송의 주자에 이르러 비로소 그 잘못된 것을 산삭·정리하였다. 또 (주자는) 일찍이 그에 대한 외전(外傳)을 지으려 했다가 결국에는 전을 세우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뜻이 있는 듯하다. 그가 『소학』을 편집한 것을 살펴보면, ‘애친입효(愛親入孝)’로써 「입교(立教)」의 첫머리를 삼았으며, 「명륜(明倫)」에서는 번다한 경문(經文)을 산삭하여 부자(父子)의 통론(通論)을 삼고, ‘폐덕(悖德)·사친(事親)’의 글로 뒤를 이은 다음 오형장(五刑章)의 첫 구절로써 종결하였다. 이어 「가언(嘉言)」으로 넓히고 「계고(稽古)·선행(善行)」으로 채웠으니, 효(孝)를 논하는 도에 더 이상 남는 것이 없다. 또 군신(君臣)·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에 이르러서는 대륜(大倫)의 조목이 갖추어졌으니, 예를 들어 전(傳)에서 사군(事君)을 논한 것은 곧 군신지의(君臣之義)이다. ‘삼가이(三可移)’·‘쟁신(爭臣)’·‘쟁우(爭友)’·‘쟁자(爭子)’ 등은 한 가지 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오륜(五倫) 다음에 총괄적으로 서술하였다. 경신(敬身)은 부모를 공경하는 실상이니 『효경』에서 말하는 ‘효지사(孝之始)’가 이것이다.⁴⁷⁾

여기에서 김인후는 『소학』의 편차가 『효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또 『효경』의 중심 내용들이 『소학』에 인용·서술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김인후는 주희가 『소학』을 편찬할 때 『효경』를 염두에 두고 그 본의를 밝히는 방향으로 『소학』의 내용을 편집·정리했다고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희가 『효경간오』를 편찬한 후 별도의 외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김인후는 『효경』을 읽는 사람은 단지 이 책에서 얻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주자지서(朱子之書)’ 즉 『소학』을 표준으로 삼아 사천(事天)의 지극한 공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여⁴⁸⁾, 『소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효경』의 본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효경』의 의미를 『소학』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김인후 혼자만의 견해는 아닌 듯한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이(李珣, 1536-1584)의 『성학집요(聖學輯要)』이다. 『성학집요』는 「통설(通說)」·「수기(修己)」·「정가(正家)」·「위정(爲政)」·「성현도통(聖賢道統)」 등

47) 金麟厚, 앞의 글. “至宋朱子 始刊其誤 而又嘗欲作此外傳矣 其不遂立傳者 似有意焉 觀其輯小學書也 以愛親入孝 爲立教之先 而於明倫一篇 則刪經之繁文 以爲父子之通論 而繫之以悖德事親之章 終以五刑章之起語結之 而廣之以嘉言 實之以稽古善行 則論孝之道 無有餘蘊 而後及於君臣夫婦長幼朋友 則大倫之目乃備 若傳之論事君 則君臣之義也 三可移·爭臣·爭友·爭子等語 不專指一事 故總鉞於五倫之下 至於敬身 則敬親之實 而經所謂孝之始也.”

48) 金麟厚, 앞의 글. “讀是經者 其不但取足於斯 而必以朱子之書爲準 推類以盡其餘 以及乎事天之極功而後已 則三聖賢用心之一致 其亦庶乎其得之矣.”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정가」 제2장 ‘효경(孝敬)’ 부분에 『효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성학집요』의 『효경』 인용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 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 『孝經』 下同
주석: 吳氏曰 人子之身 父母之所遺 自愛而不敢虧 所以爲孝之始也 能立身行道 則己之名揚於後世 而父母之名 亦顯矣 所以爲孝之終也.⁴⁹⁾

위에서 보듯이 이이는 『효경』의 원문을 먼저 기록하고 끝에 세주(細注)로 ‘효경’이라고 써서 인용 증거를 밝힌 다음, 줄을 바꾸어 해당 구절에 대한 주석을 함께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 인용문의 오씨(吳氏) 주석이 『효경』 관련 주석서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소학집주(小學集註)』에 수록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위의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학집요』에 인용된 모든 『효경』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이이는 『성학집요』에서 『효경』을 인용할 때 원문의 출처는 ‘효경’으로 명시하면서도 해당 원문의 주석은 『소학집주』에 실려 있는 것을 인용하였다. 이는 이이가 『효경』의 의미를 『소학』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앞서 본 김인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때, 비록 두 가지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김인후와 이이가 16세기 조선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학자들이었음을 고려하면, 『효경』을 『소학』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하는 입장은 당시에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선전기의 『효경』 텍스트는 『효경대의』의 수용으로 다시 한 번 변화하였다. 『효경대의』는 원대(元代)의 학자 동정이 주희의 『효경간오』에 의거하여 주석을 붙인 책이다. 『효경대의』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읽혀진 『효경』 텍스트로, 『효경대의』 수용 이후 조선에서 읽힌 『효경』은 모두 『효경대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효경대의』는 대체로 옹화(熊禾)의 서(序)와 서관(徐貫)의 발(跋)이 수록

49) 李珥, 『栗谷全書』 권23, 「聖學輯要 五」 正家第二, 孝敬.

된 판본과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발문을 써서 1589년(선조 22)에 간행한 판본 등 두 가지가 유통되었다.⁵⁰⁾

『효경대의발』에서 유성룡은 공자가 육경을 서술(敍述)한 후 다시 『효경』을 지어 육경 전체를 총괄·회통함으로써 육경의 근본이 효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한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의 내용을 인용하고 이를 긍정한 다음, 따라서 효에 마음을 다하면 육경의 도(道)는 그 안에 다 있게 된다고 하였다.⁵¹⁾ 이어 그는 주희의 『효경간오』와 동정의 『효경대의』가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진(秦)나라가 전적(典籍)을 불사른 이후 유경(遺經)이 간간이 세상에 출현하여 벽서(壁書)[고문(古文)]과 금문(今文)이 뒤섞여 통용되었다. 비록 제유(諸儒)의 변론과 보철(補綴)을 거쳤지만 곧 다시 없어지곤 하였다. 그러다가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자(朱子)가 비로소 간오(刊誤)를 지어 경전의 차례를 정함으로써 공자의 옛 글이 회복되었고, 그 뒤를 이어 파양(翻陽) 동씨(董氏)가 주석을 지어 그 귀취(歸趣)를 지극히 설명한 후에야 한 경서(經書)의 조리가 환하게 밝아졌으니, 성문(聖門)에 끼친 공이 매우 크다.⁵²⁾

여기에서 유성룡은 송대 이전의 『효경』, 즉 한당대에 유행한 고문·금문의 『효경』 텍스트는 공자가 지은 『효경』의 원형을 보여주지 못하며, 따라서 이 텍스트를 연구한 한당대 『효경』 주석서들 또한 완전하지 못할 뿐더러 그나마도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희가 『효경간오』를 편찬함으로써 공자가 지은 『효경』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었으며, 따라서 『효경간오』에 의거하여 주석한 동정의 『효경대의』는 『효경』의 본의를 가장 잘 해설한 주석서로 이해하였다.

김인후와 유성룡은 모두 주희가 『효경』의 잘못된 것을 산삭함으로써 『효경』의 참모습을 밝혔다고 하여 『효경간오』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문에는 주희가 『효경간오』를 편찬한 근본 목적에

50) 이재영, 「朝鮮時代 『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 『서지학연구』 38(2007), 342-343쪽.

51) 柳成龍, 『西厓集』 권18, 「孝經大義跋」. “隋志曰 孔子既敍六經 題目不同 持意差別 恐斯道離散 作孝經以總會之 明其支流雖分 本萌於孝 其說是已 於此盡心焉 則六經之道 學在是矣.”

52) 柳成龍, 위의 글. “秦火既熄 遺經間出 壁書與今文雜行 雖經群儒辨論補綴 而輒復湮廢 至宋朱子 始爲刊誤 又次其經傳 以復孔氏之舊 繼以翻陽董氏爲之註釋 極其歸趣 然後一經之條貫煥然 其有功於聖門甚大.”

대한 이해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주희는 한당대의 ‘효치론’에 기초한 『효경』 이해를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독자적인 정치론을 기반으로 『효경』을 산삭·재편집하여 『효경간오』를 편찬하였다.⁵³⁾ 하지만 김인후와 유성룡의 발문에는 주희가 가졌던 문제의식, 즉 한당대의 ‘효치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인후·유성룡 등이 주희의 『효경간오』를 『효경』의 원형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주희가 『효경』에 대해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를 갖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 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조선전기의 『효경』은 학자들이 깊이 있게 연구할 경학의 대상이 아니라 초학자나 아동들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교양교재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효경』 학습은 문리를 통하게 하기 위한 기초 학습 내지는 생활 속에서 『효경』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암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조선의 학자들 중에서 『효경』을 경학의 측면에서 연구한 이는 조선전기에는 보이지 않고, 조선후기에도 윤희·윤봉구 등 소수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효경간오』나 『효경대의』만으로는 『효경』에 대한 주희의 문제의식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에 수록된 주희의 『효경』 관련 언설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 학자들의 『주자대전』·『주자어류』 연구는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제외하면 17세기 중반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16세기 조선 학계에서 『효경』에 대한 주희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조선전기의 『효경』 텍스트는 『금문효경』에서 『효경간오』·『효경대의』 등 성리학적 텍스트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효경』 학습은 여전히 기초 교양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주자대전』·『주자어류』 등에 대한 연구도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 학자들이 『효경간오』 등에 담겨진 주희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효경』 텍스트의 변화가 실제적인 『효경』 이해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53) 정호훈, 앞의 논문, 88-98쪽 참조.

2. 왕실 교육에서의 『효경』 이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전기의 『효경』은 아동의 기초 학습서로 인식되었을 뿐, 학자들이 경학의 차원에서 깊이 연구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조선전기 학자들이 『효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문헌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아동 학습의 경우에도 문집에 수록된 연보(年譜)에 “○세 때 『효경』을 읽었다” 정도의 내용만 실려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효경』을 공부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단편적이지만 조선전기 『효경』 이해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왕실에서의 『효경』 학습 기사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왕실 교육에서의 『효경』 이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경』이 아동기의 기초 학습서로 사용된 것은 왕실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찍부터 왕실 교육의 주요 교재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왕실에서의 『효경』 교육은 주로 원자·세자나 대군·공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국왕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에서 『효경』이 진강되기도 하였다.

서연(書筵)에서 원자나 세자에게 『효경』을 진강해야 한다는 논의는 조선초기부터 제기되었다. 1402년(태종 2) 6월 사간원에서는 당시의 시무(時務)를 정리해서 태종에게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원자(元子)의 입학(入學)에 관한 것이었다. 사간원에서는 원자가 제2의 임금이므로 어릴 때부터 학문을 통해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신(儒臣)을 택해 시학(侍學)의 임무를 맡기고 날마다 서연을 열어 『효경』을 강습할 것을 건의하였다.⁵⁴⁾ 또 1457년(세조 3) 9월에 왕세자 [뒤에 덕종(德宗)으로 추존]가 사망하자, 조선정부는 같은 해 11월에 해양대군(海陽大君, 뒤의 예종)의 왕세자 책봉을 요청하는 사신을 명에 파견한 다음 해양대군에게 본격적인 왕세자 수업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때 가장 먼저 강습한 교재가 바로 『효경』이었다.⁵⁵⁾

1482년(성종 13) 7월 홍문관 부제학 유윤겸(柳允謙)은 원자 교육에

54) 『太宗實錄』 2년 6월 18일(경오).

55) 『世祖實錄』 3년 11월 10일(경오), 18일(무인); 4년 1월 30일(기축).

관한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에서도 원자 교육의 출발점으로 『효경』과 『소학』이 거론되었다.⁵⁶⁾ 1555년(명종 10) 11월에는 여러 재상이 원자의 보양(輔養) 방법에 대한 건의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명종은 “원자가 비록 요즈음 『천자문(千字文)』과 『효경』 읽기를 마쳤으나 아직 대역(大疫)을 겪지 않았으니 마땅히 더 참작하여 하겠다”라고 답하였다.⁵⁷⁾ 당시 원자의 나이는 5세였으므로⁵⁸⁾, 원자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효경』을 학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608년(광해군 즉위) 2월 광해군이 즉위한 후 4월부터 세자의 서연에서 『효경대의』를 진강하기 시작해서 같은 해 11월에 진강을 끝마쳤다.⁵⁹⁾

왕실에서의 『효경』 학습은 원자·세자뿐만 아니라 대군(大君)·군(君) 등의 왕자들과 공주(公主)·옹주(翁主)·현주(縣主) 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세조는 대군으로 책봉되기 전인 5세 때에 『효경』을 암송하였다.⁶⁰⁾ 또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졸기(卒記)에는 광평대군이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효경』, 『소학』, 사서삼경 등에 두루 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⁶¹⁾, 여러 서적 중 『효경』이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이 책이 가장 먼저 학습된 교재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선전기에 지어진 옹주나 현주들의 제문·묘갈명·묘지명 등에는 이들이 어린 시절에 『효경』, 『소학』 등을 공부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⁶²⁾, 왕실 여성의 교육에도 『효경』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연에서의 『효경』 진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이 강의되었을까? 광해군-인조대에 활동한 학자 최현(崔峴, 1563-1640)의 『인재집(訥齋集)』에 수록된 「서연강의(書筵講義)」는 1608년 4-5월 서연에서의 『효경대의』 진강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전기 왕실에서의 『효경』 학습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당시 서연의 『효경대의』 진강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최현의 「서연강의」에는 이 중 4월 5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실시된 여덟 차례의 진강 내용이

56) 『成宗實錄』 13년 7월 15일(임오).

57) 『明宗實錄』 10년 11월 29일(경신).

58) 원자가 출생한 것은 1551년 5월 28일이었다. 『명종실록』 6년 5월 28일(을묘).

59) 최현, 『訥齋集』 권6, 「書筵講義」; 『光海君日記』 권10, 광해군 즉위년 11월 4일(정해).

60) 『世祖實錄』, 「總序」.

61) 『世宗實錄』 26년 12월 7일(임자).

62) 李荇, 『容齋集』 권10, 「吉安縣主李氏墓誌銘」; 鄭士龍, 『湖陰雜稿』 권7, 「靜愼翁主墓碑銘」-并序」; 具思孟, 『八谷集』 권3, 「有明朝鮮國敬顯公主墓誌銘」.

수록되어 있다. 「서연강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의 내용을 보면, 서연에서 하루에 진강하는 『효경』의 범위가 상당히 짧았음을 볼 수 있다. 진강은 보통 서연관이 먼저 본문을 두 번 정도 읽은 다음 세자가 따라서 두 차례 본문을 읽었으며, 이어 서연관이 본문의 의미를 해설·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강의 내용을 보면, 『효경』의 자구(字句)에 대한 세밀한 해석보다는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와 균왕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608년 4-5월 서연의 『효경대의』 진강(進講) 내역

날짜	진강 범위	서연관	강의 내용
4. 5. (晝講)	「孝經大義序」(熊禾) ‘孔門之學-孝經之祖也’	李慶全 崔暉	孝는 百行의 근본이다. 堯舜禹湯文武周公의 德도 孝를 근본으로 삼았고, 天子·諸侯·公卿·大夫·庶人도 모두 孝를 근본으로 삼았다. 작게는 一家·兄弟·妻子로부터 크게는 一國·天下까지 孝로써 미루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孝가 위대한 까닭이다(李慶全).
4. 13. (晝講)	「孝經大義序」(熊禾) ‘唐玄宗 開元勅儀-一至於此’	李必榮 崔暉	唐玄宗이 도덕적으로 無禮·無度한 화를 일으킨 것은 司馬貞이 『孝經』에서 閨門章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효는 마음에 근본하여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李必榮). 孝에서 閨門을 중시하는 것은 閨門이 바르게 되어야 一家가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司馬貞은 겉으로 드러나는 威儀를 禮라고 여겼을 뿐, 天性에 근본하여 節文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임을 알지 못하였다(崔暉).
4. 20. (晝講)	「經1章」 ‘仲尼閑居-(註)燕居之時也’	鄭弘翼 崔暉	曾子는 노둔했지만 공부가 독실했기 때문에 道統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鄭弘翼). 자질이 노둔해도 공부가 독실하면 聖賢의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자질이 영명해도 성실한 공부가 없으면 聖賢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崔暉).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良心은 古今에 차이가 없으므로, 古人의 文字와 善行을 熟讀深思하면 점차 깨닫는 바가 있게 된다(鄭弘翼). 文字를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체득해서 실천해야 한다. 實行이 없으면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崔暉).
4. 22.	「經1章」	李忠養	至德要道는 곧 孝를 말한다(李忠養).

날짜	진강 범위	서연관	강의 내용
	(畫講) ‘(註) 仲尼呼曾子之名 -所當知也’	崔暉	德은 하늘이 부여하여 사람이 마음에 얻은 것이다. 道는 이 德을 말미암아 日用事爲에 나타나는 것이다. 德이 있는 후에 道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는 실제 一物이니, 그래서 至德要道라고 한다(崔暉). 孝는 一家 내의 일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천하의 사람들을 和順하여 원망이 없도록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崔暉).
4. 23. (畫講)	「經1章」 (註)引而不發-朋友之交也’	閔德男 崔暉	학문은 心省工夫가 중요하다. 공자는 증거가 마음으로 살피기를 바라서 바로 말하지 않았다(崔暉). 人心이 하늘에서 얻은 것은 天地陰陽의 氣로, 仁義禮智가 그것이다(閔德男). 人心이 하늘에서 얻은 바 仁義禮智는 氣가 아니라 理이다. 하늘의 元亨利貞이 사람에게는 仁義禮智가 되니 이것이 性이며, 하늘로부터 얻어서 몸에 구현되는 것이 德이나 性과 德은 一物이다. 道는 德이 日用에 드러난 것이니 道와 德도 일물이다(崔暉).
4. 24. (畫講)	「經1章」 (註)此五者-而非有所強拂爲之也’	閔德男 崔暉	나에게 이 性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性이 있기 때문에, 나의 性을 따라서[循] 다른 사람의 性을 順하게 한다. 이것을 천하에 미루면[推] 和順하여 원망이 없게 된다(崔暉).
4. 25. (畫講)	「經1章」 (註)曾子避席曰- (註)止辭讓而對’	李必榮 崔暉	제왕의 학문은 讀誦에 그쳐서는 안 되며, 精思熟讀에 더욱 힘써야 한다(李必榮).
5. 12. (畫講)	「經1章」 (註)孔子既言孝者- 知所敬矣’	朴槿 崔暉	‘無所不愛而無所怨惡’은 부모에 대한 愛敬의 마음을 확대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小人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朴槿). 군주는 好惡를 엄격하게 하여 항상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주가 好惡의 마음을 잃으면 小인의 해로움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孝는 人子의 직분이다. 군주가 스스로 人子의 직분을 다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절로 감동하여 자연히 教化되는 것이다(崔暉).

특히 제왕의 학문은 단순한 독송(讀誦)이 아니라 정사숙독(精思熟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공부에 임할 것을 강조한 것(4월 25일), 군주가 효의 직분을 실천하면 백성의 교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한 것, 군주는 호오(好惡)의 마음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소인(小人)을

물리쳐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상 5월 12일) 등은 서연에서의 『효경』 교육이 단순한 기초 교육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교육을 받는 대상이 왕위를 계승할 미래의 국왕이라는 점에서 『효경』 교육 역시 군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기르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자·원자의 『효경』 학습은 여타의 왕자·공주의 『효경』 학습과는 격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절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효경』은 명종대에 국왕의 경연에서 진강되기도 하였다. 경연에서 『효경』을 진강해야 한다는 논의는 명종대 이전부터 간간히 나타났다. 1470년(성종 1) 1월 정척은 『효경』 1부를 성종에게 올리면서 “이 글은 중니(仲尼)가 훈회(訓誨)한 말로 어버이를 섬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좌우에 두고서 성상(聖上)의 관람에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하여 국왕의 『효경』 학습을 촉구하였다.⁶³⁾ 또 1장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주세붕은 송인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효경』이 경연에서 진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작은 결함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는 그가 『효경』을 경연에서 반드시 진강되어야 하는 서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1545년(명종 즉위) 7월에 영경연사(領經筵事) 윤인경(尹仁鏡)은 “『효경』이 글은 간략지만 의리가 갖추어져 있고 말은 천근(淺近)하여도 지취(旨趣)는 심원(深遠)한 책이므로 성학(聖學)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석강(夕講)과 야대(夜對)에서 『효경』을 진강할 것을 건의하였다.⁶⁴⁾ 그리고 명종이 이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9일 석강에서 『효경』이 진강되었다.⁶⁵⁾ 당시 경연관은 이언적(李彦迪)이었고, 이날 진강된 구절은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였다.⁶⁶⁾ 이언적은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군주는 자신의 몸을保重(保重)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써서 한순간이라도 게으른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⁶⁷⁾

63) 『成宗實錄』 1년 1월 8일(정해).

64) 『明宗實錄』 즉위년 7월 22일(임오).

65) 『明宗實錄』 즉위년 8월 9일(기해).

66) 이 글 3장 1절에서 김인후가 『孝經刊誤』를 간행할 때 유희춘에게서 받은 進講本 『孝經刊誤』를 저본으로 했으며, 유희춘에게 책을 받은 시기가 1545년 12월경임을 확인하였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1545년 8월 경연에서 진강된 『孝經』 텍스트는 『孝經刊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67) 『明宗實錄』 즉위년 8월 9일(기해).

이상과 같이 『효경』은 명종대에 경연의 교재 중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경연에서 『효경』이 진강된 사례는 위에서 본 명종대 기사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왕실에서의 『효경』 교육에서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음 왕위 계승자인 원자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연이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대부터 조선전기에 이르기까지 『효경』의 위상 변화 추이와 조선전기 『효경』 이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효경』은 삼국시대에 처음 유입된 이래로 우리나라 유학 교육의 주요 경서 중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효경』이 가졌던 실제 위상은 각 시기마다 차이를 보였다.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효경』은 국학 교육과 인재 선발에서 필수적인 핵심 경서로 중시되었다. 이는 한당대 『효경』의 ‘가천하(家天下) 정치론’과 ‘효치론’이 신라와 고려에서 추진된 정치 개혁, 즉 왕권 강화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체제의 확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성리학을 국가사회 운영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정치이론의 경전적 근거를 『대학』에서 찾았으며, 따라서 이전 시대에 『효경』이 가졌던 정치이론서로서의 위상과 중요성은 상실되었다. 그 결과 『효경』은 유교 윤리의 핵심인 효의 규범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초학자나 아동의 기초 학습서로만 남게 되었다.

조선에서 읽혀진 『효경』 텍스트는 16세기 중반까지는 이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금문효경』에 기반한 텍스트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 이후 주희의 『효경간오』, 동정의 『효경대의』 등 성리학의 『효경』 텍스트들이 간행·보급되면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즉, 성리학적 『효경』 텍스트의 보급은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여타 경서들의 성리학적 텍스트가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여말선초에 이미 국내로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편 『효경간오』나 『효경대의』가 간행·보급된 후에도 조선의 학자들은 이들 텍스트에

담겨 있는 주희의 문제의식, 즉 한당대 『효경』의 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전기 『효경』의 위상이 아동의 기초 학습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자들이 『효경』을 경학의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생각된다.

한편 『효경』은 원자·세자를 비롯하여 왕자와 공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왕실 교육에서도 기초 학습 교재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명종대에 국한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국왕의 경연에서도 『효경』이 진강된 바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교육은 원자·세자의 서연에서 이루어진 『효경』 진강이었다. 서연에서의 『효경』 진강은 교육 대상자가 미래의 국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초 교육을 넘어서 장래의 군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참 고 문 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太祖-光海君).

『孝經大義』, 『孝經正義』.

姜希孟, 『私淑齋集』; 具思孟, 『八谷集』; 權近, 『陽村集』; 奇大升, 『高峯集』; 金誠一, 『鶴峯集』; 金麟厚, 『河西全集』; 金宗直, 『佔畢齋集』; 盧守愼, 『蘇齋文集』; 文益成, 『玉洞集』; 朴承任, 『嘯阜集』; 蘇世讓, 『陽谷集』; 申用溉, 『二樂亭集』; 安敏學, 『楓崖集』; 安鼎福, 『東史綱目』; 柳成龍, 『西厓集』; 李穀, 『稼亭集』;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李穡, 『牧隱詩藁』, 『牧隱文集』; 李陸, 『靑坡集』; 李珥, 『栗谷全書』; 李廷馨, 『知退堂集』; 李浚慶, 『東阜遺稿』; 李詹, 『雙梅堂篋藏文集』; 李恒福, 『白沙集』; 李荇, 『容齋集』; 鄭士龍, 『湖陰雜稿』; 周世鵬, 『武陵雜稿』; 朱熹, 『朱子大全』; 崔峴, 『訥齋集』; 韓致滄, 『海東釋史』; 黃宗羲, 『宋元學案』.

김수태, 「무열왕계의 왕권 확립」. 『한국사』 9, 1998, 국사편찬위원회, 77-95쪽.

金瑛河, 「新羅 中代の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137-179쪽.

金勳植, 「高麗後期の 『孝行錄』 보급」. 『韓國史研究』 73, 1991, 21-48쪽.

문철영, 『고려 유학사상의 새로운 모색』. 경세원, 2005.

이성규, 「漢代 『孝經』의 보급과 그 이념」. 『韓國思想史學』 10, 1998, 183-221쪽.

이재영, 「朝鮮時代 『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 『서지학연구』 38, 2007, 323-346쪽.

李熙德,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 일조각, 1984.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東方學志』 116, 2002, 71-106쪽.

국 문 요 약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효경(孝經)』은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국학 교육과 인재 선발의 핵심 경서로 중시되었다. 이는 한당대(漢·唐代) 『효경』의 '가천하(家天下) 정치론'과 '효치론(孝治論)'이 왕권 강화와 국왕 중심의 관료체제 확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정치이론의 경전적 근거를 『대학(大學)』에서 찾았다. 따라서 『효경』의 정치이론서로서의 위상은 점차 상실되었고, 그 결과 『효경』은 유교의 핵심 윤리인 효의 규범을 담고 있는 아동의 기초 학습서로만 남게 되었다.

조선에서 읽힌 『효경』 텍스트는 16세기 중반까지 『금문효경(今文孝經)』에 기반한 텍스트가 주를 이루다가, 16세기 중반 이후 주희(朱熹)의 『효경간오(孝經刊誤)』, 동정(董鼎)의 『효경대의(孝經大義)』 등 성리학의 『효경』 텍스트들이 간행·보급되면서 면모를 일신하였다. 하지만 『효경간오』나 『효경대의』가 간행·보급된 후에도 조선의 학자들은 한당대 『효경』 이론에 대한 주희의 비판적 인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가 없었다. 이는 『효경』의 위상이 아동의 기초 학습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자들이 『효경』을 이론적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효경』은 왕실에서도 기초 학습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원자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교육 대상자가 미래의 국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초 교육을 넘어 장래의 군왕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투고일 2012. 1. 13.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15.

주제어(keyword) 『孝經』(Hyogyöng), 아동의 기초 학습서(a basic subject for juvenile education), 『孝經刊誤』(Hyogyöng kano), 『孝經大義』(Hyogyöng taüi)